

연구논문

## 여성친화도시의 돌봄 실천에 대한 여성주의 접근: 대구·경북 여성친화도시를 중심으로

성지혜\*

〈국문초록〉

돌봄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성별화된 시선으로 바라봐졌다. 아직도 여성이 돌봄에 더 적합하고 자연스러우며, 남자다운 것은 돌봄을 하지 않거나 적어도 돌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는 여전하다. 여성이 오래전부터 사적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을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성별 이데올로기가 끈질기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이중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민주적인 행위임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시키고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친화도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여성친화도시의 돌봄은 여성, 남성, 국가가 ‘함께 돌봄’을 실천함으로써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는 여성주의가 돌봄에 대한 성 역할 구분을 성 차별 이론의 핵심으로 보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돌봄의 평등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함께 돌봄’의 실천은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문명적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의 변화와 혁명의 갈림길에서 ‘함께 돌봄’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여성주의 입장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조명해 보았다.

**주제어:** 돌봄, 이중노동, 여성주의, 여성친화도시, 함께 돌봄

\* 대구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jihyeai@dwff.or.kr)

© 2016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성별화된 돌봄에 대한 문제제기

오래 전 인간은 생존을 위해 남성은 생산 활동, 여성은 재생산 활동으로 성별에 따른 역할과 분업이 필요했던 적이 있었다. 도구가 발달되고 잉여 시간이 늘어나자 남성은 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권력 확장에, 여성은 도구의 발달과는 무관한 ‘허드렛일’에 관심을 가졌다. 여성이 관심을 가진 ‘허드렛일’의 대부분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러한 여성의 선택을 두고 길리건(1997)은 콜버그의 도덕성 논리를 반박하면서 여성이 가진 배려의 도덕성이라 높이 평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러니(2004)는 여성이 가부장제 창조에 스스로 가담한 결과로 여성 종속 체계를 강화시켰다고 비판하였다. 어쨌든 이후부터 여성의 타자화는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이에 의한 역할 분업이 차별을 가져오는 성별 분업으로 고착화 되었고, 권력을 가진 남성의 합의 하에 ‘중요한 일’의 기준이 생기면서 일의 위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차이에서 시작된 분업이 차별로 바뀐 순간이며, 돌봄이 여성의 일로 굳어지면서 성별 불평등은 가속화되었다.

초도로우(2008)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돌봄이 성별화된 시선으로 바라봐졌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출산으로 인해 강한 모성애를 가지고 있으며, 육아 등 돌봄 제공자로서 자연적 우월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물학적 결정론은 끈질긴 역사를 가지면서 여전히 인식적 차원의 지배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스트<sup>1)</sup>가 생물학적 결정론의 테두

1) 주류 페미니즘으로 알려져 있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개인의 존중과 독립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유가 최대의 선이라는 자유주의 신념에 기반을 둔다.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이론가로 『여성 권리의 옹호(1792)』에서 권리와 기회 평등은 생활의 온갖 영역에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평등 권리를 요구하면서 법 개정이나 사회 개혁을 통한 자유·평등·정의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여성에게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깊이 뿌리하고 있는 본질적인 계

리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여성에게서 출산과 돌봄은 분리되어야 하며,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출산은 필수이지만, 돌봄은 분명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봄이 여성에게 선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대한 움직임이 만연하며, 돌봄의 중심에 여성을 두기를 고집하고 있다. 돌봄의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우선 할당되고 있으며, 남성은 떠맡지 않아도 되거나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성이 돌봄에 더 적합하고, 남자다운 것이 돌봄을 하지 않는 것이거나 적어도 돌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는 지금도 지배적이다(초도로우, 2008). 전근대적인 공적, 사적 영역 구분과 성별 이데올로기의 견제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돌봄이 여성의 일로 구분된다는 것은 남성은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부여받는 특혜를 누린다는 의미이다(트론토, 2014). 남성이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갖는 것은 돌봄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활동에 몸담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대 사회의 구조와 여성이 처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일 뿐이다. 여성은 이미 사적 영역을 떠나 공적 영역에서 남성의 영역으로 여겼던 ‘중요한’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는 여성의 요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강요되는 실정이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는 피할 수 없으며,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데 여성과 남성 모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필수로 요구하면서도 돌

---

급 억압이나 인종 억압의 현실을 무시하고 있으며, 여성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남성 가치관에 도전하기보다 오히려 남성 가치관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다른 페미니스트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페미니스트로 분류되는 질라 아이젠스타인은 페미니즘은 여성 억압에 대한 분석에서 성을 계급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해석될 수 없는 지점이 있다고 보았다. 질라 아이젠스타인은 자유주의와 페미니즘을 모순된 관계로 보고 있다. 하지만 모두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인식에 바탕하고 있기에 보다 급진적인 실천의 필요성을 요구했다(터틀, 1999).

봄 또한 여성이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중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제 여성은 슈퍼우먼이 되지 않으면 전보다 더 살아가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 왜 여성은 지나치게 많은 돌봄을 맡아야 하는 것일까? 무엇이 여성으로 하여금 돌봄 책임을 떠맡게 하는 것일까? 여성이 원하기 때문일까? 여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기 때문일까?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여성에게 주어진 돌봄의 짐을 덜어내거나 털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돌봄의 굴레에서 여성을 끌어낼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할까? 다양한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사실 지금까지는 돌봄의 무임승차권으로 남성이 특혜를 누린다고 해서 가족 내에서만 불평등이 심화될 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았다. 초기 산업자본주의 핵가족 모델의 정착과 함께 '가족임금'의 가면 속에서 여성은 가족이 요구하는 돌봄 책임의 범위 안에서만 가족과 갈등이 가장 적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틸리·스콧, 2008). 그러나 가족임금이 가족의 실질적인 생활임금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자명한 사실과, 여성의 참여 없이 경제 사회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정과 노동 시장을 동시에 오가게 하고 있다.

우리가 간과하는 사이에 일상화 되어버린 여성의 이중 노동을 더 이상 가족 내 불평등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고통은 미래세대 여성의 삶으로 다시 대물림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여성의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하는 것은 여성에게 이중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비민주적 행위임에 분명하다. '책임의 이중전가(double shift)'는 이전의 책임 분담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의 분담에 대해 체계적으로 재조직하려고 고려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트론토, 2014).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돌봄의 평등한 실천과 민주적이고 공평한 수혜

는 가능할 것인가? 일과 가정에서 이중 노동에 시달리는 여성의 해방을 도모할 수 있을까? 트론토(2014)는 ‘함께 돌봄(caring with)’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돌봄의 실천과 수혜가 가능하다고 장담하면서, ‘함께 돌봄’으로 돌봄의 필요와 실천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 평등, 자유에 대한 민주적 기여에 부합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함께 돌봄’이란 무엇이며, 행위 주체는 누구이며, 실천은 가능할까? 어떤 사회가 함께 돌봄의 가능성을 갖고 있을까? 이 연구는 ‘함께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최근 들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것은 여성친화도시의 궁극적인 목표인 성 평등 사회가 바로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함께 돌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돌봄’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먼저 여성주의 돌봄과 여성친화도시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실제 대구·경북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4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통해 돌봄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돌봄의 영역 중에서 육아와 가사에 한정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2. 여성주의 돌봄과 돌봄의 가치 확산

### 1) 여성주의 돌봄과 여성친화도시의 관계성 탐색

돌봄은 ‘돌보다’의 명사형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다, 보살피 부양하거나 수발하다’ 등의 뜻을 가진다(Daum, 2015). ‘아이를 돌보다, 노인을 돌보다, 환자를 돌보다, 가족을 돌보다, 집안일을 돌보다’ 등으로 자주 쓰이며, 언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돌봄의 이미지가 그려진다.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돌봄 이미지와 여성(특히 어머니)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부정

하기란 쉽지 않다.

여성주의는 돌봄에 대한 성 역할 구분이 성 차별 이론의 핵심이며, 성 평등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터틀, 1999). 그러나 여성주의 운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가장 적은 영역이 돌봄이니 아이러니할 뿐이다. 돌봄이 '전통적인 여자들의 일'로 여겨져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터틀(1999)은 돌봄의 성 차별 개선은 남성이 '남자들의 일'로 막아온 장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욱 어렵고 혁명적인 일이라 토론했다. 한 예로, 양성평등을 그토록 외치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가정 내 대부분의 일은 여성의 책임을 기대하였고, 여성은 이중노동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돌봄은 어떤 것인가? 여성주의는 여성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는 과정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자연스러운' 인간 행동에 대한 기존 관념에 도전할 것을 요구한다(볼스·클레인, 1986).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된 것에서 스스로 자유를 꿈꾼다면, 그것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직접 경험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돌봄은 돌봄이 여성에게 더 자연스럽고 적합하다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돌봄과 관련된 자유와 평등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여성이 '모성적'이거나 양육을 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돌봄을 잘할 수 있고, 일부 남성들도 일부 여성들보다 더 돌봄을 잘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성에게 돌봄은 '할 수도 있는', 여성에게 돌봄은 '해야 하는' 것으로 둘 사이의 간극이 큰 것이 현실이다.

아직도 돌봄에서 평등이란 완고한 불평등의 그늘에 가려 있다. 실상 가부장제 자본주의하에서 문제를 위장하고 있지만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다수의 여성에게 주어지는 돌봄의 선택은 분명 자유롭지 못하다. 자유롭

지 못한 선택은 억압받고 있다는 증거이며, 억압받고 있다면 억압받는 자의 선택은 결코 자유도, 평등도, 정의가 될 수 없다. 사실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서 돌봄에 가장 깊이 침투해 있다. 일부는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가지는 반면, 일부는 태어나면서부터 돌봄 책임을 떠안거나 책임을 권장 받는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권장하는 것은 희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역사 이래 지금까지 돌봄 제공은 여성의 몫이라는 등식이 당연시되어 왔다. 그 결과 돌봄의 성별 분업은 확고해지고,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돌봄 영역으로 귀속되고, 남성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얻게 된 것이다.

여성들은 전 생애에 걸쳐 돌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연령대의 여성은 자녀의 양육과 부모를 동시에 돌보아야 하는 이중 돌봄의 문제에 노출되기도 한다. 송다영(2014)은 돌봄을 여성의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으로 파악하여, 이중 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 지적했다. 어머니-자녀, 며느리-시부모, 딸-부모 등 여성은 항상 돌봄 제공자의 위치에 우선 배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텔리·스콧(2008)이 가족 안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권력이란, 공동의 이해를 위해 자신의 이해를 제일 먼저 희생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파악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여성이 차별적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선택이 돌봄인 것이다. 이처럼 여성에게는 남성이 경험하지 않은 생물학적인 시간적 제약에 의해 가족 안에서 돌봄을 먼저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자기희생은 집단의 생존을 위해 어머니 노릇을 선택한 최초의 노동 분업이 결과적으로 여성 종속 체계를 강화시켜 가부장제가 창조되었다고 해석한 러너(2004)의 입장과도 유사하다.

여성의 자기희생은 돌봄에 끝나지 않았다. 여성은 어머니 역할이라고 언급되는 자녀 양육활동, 가사노동 등 집안의 각종 돌봄을 수행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집밖의 일을 찾았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생산과 재생산 영역

을 모두 포함하게 된 것이다. 공·사 영역을 넘나들면서 자기희생을 감수하는 여성의 행동을 길리건(1997)은 배려의 도덕성이라 명명하면서, 남성이 발달한 정의의 도덕성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길리건에 따르면 정의의 윤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평등의 전제에 의존하고 있다면, 보살핌의 윤리는 어떤 사람도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을 넘은 비폭력의 전제에 의존하기에 두 관점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성과 남성이 도덕적 성숙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관계의 당사자 모두가 그 관계의 불평등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길리건의 주장을 빌린다면 여성주의 돌봄이란 평등과 배려가 어우러진 ‘함께 돌봄’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함께 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돌봄이 더 이상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해체해야 하며, 여성과 출산, 여성과 양육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의 돌봄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젠더 활동의 다른 모습들처럼 역할 훈련이나 역할 동일시의 산물에 불과하다(초도로우, 2008). 여성의 돌봄은 불변하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성 역할에 따른 돌봄의 사회적 구성은 단순한 역할 차이가 아니라 성 불평등의 원인을 재생산하고 있기에 극복되어야만 한다. 극복의 출발점이 바로 ‘함께 돌봄’이다.

‘함께 돌봄’이 필요한 것은 돌봄을 특정 성(性)에 한정시킬 경우, 돌봄을 제공하는 특정 성은 돌봄으로 인해 사회참여와 경제활동 기회를 지속적으로 차단당할 수 있어 불평등을 재생산하면서 고착시키기 때문이다. 돌봄의 불평등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다. 돌봄은 거대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불평등을 확산시키고 있다. 돌봄의 상당부분이 전문화되어 노동시장을 채워가면서, 사회 하층의 여성들과 이주민으로 구성된 새로운 노동계층을 만들어가고 있다. 트론토(2014)는



미국에서 비양육 돌봄<sup>2)</sup>은 계급, 인종, 민족, 성(gender)으로 구분되는 하층 지위의 국민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은 인종과 계급의 문제이기도 하며,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그룹으로 시민을 나누는 여러 가지 방식과 연계되어 불평등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돌봄 노동을 특징짓는 성별화된 언어, 성별화된 논리 구조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안숙영(2010)은 돌봄 노동이 ‘여성적 서비스의 세계화’로 국제적인 차원에서 여성과 여성 간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성별 분업을 넘어 인종적 분업으로 여성들 사이의 위계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범지구적으로 자행되는 ‘돌봄 노동’의 성별화·위계화·계급화의 극복은 ‘함께 돌봄’의 실천을 통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돌봄의 가치를 확산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 2) ‘함께 돌봄’과 돌봄의 가치 확산

월비(1996)의 주장처럼 여성의 삶과 성 불평등을 결정짓는 중심라인에 가족이 있다. 가족관계 연속성의 핵심에 돌봄이 있고,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불평등이 존재한다. 돌봄의 성 불평등은 남성과 여성, 생산과 재생산의 이분법이 출발선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여성은 이미 가족 안에서 재생산보다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

가족의 변화와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그동안 여성에게 집중되었

2) 트론토는 더피(Mignon Duffy, 2011)의 논지를 빌려 돌봄을 ‘양육(nurturant)’ 돌봄과 ‘비양육(nonnurturant)’ 돌봄으로 구분하고 있다. 양육 돌봄은 돌봄으로 삶의 질(well-being)이 향상되는 특정한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비양육 돌봄은 양육 돌봄의 필수조건인 신체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돌봄이다. 트론토는 만일 돌봄에서 ‘남들이 꺼리는 노동(dirty work)을 제외시킬 수 있다면, 그러한 노동이 포함되었을 때와 다르게 돌봄 노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라 주장하면서 비양육 돌봄의 철학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있다(트론토, 2014: 69-70).

던 과도한 돌봄에 대한 문제제기 및 가족 구성원의 고른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과 사회는 충분한 조응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장혜경 외(2012)는 부부 모두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맞벌이 가구가 돌봄에 할애하는 시간을 비교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음을 증명하였다. 여성의 생산 활동, 사회참여가 급속히 확대되는 것과 달리 남성의 돌봄 참여가 더딘 상황에서 돌봄의 공백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배은경(2010)은 우리에게 지배적인 모성 이데올로기가 가족 내 돌봄 공백과 여성의 이중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남성의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이수(2011)도 남성의 역할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여성이 자의와 타의에 의해 사회참여가 필수라면, 남성의 돌봄 참여도 필수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요구하면서 돌봄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성의 이중노동이 불가피한 이유이다. 그렇다면 왜 남성의 돌봄 참여 속도는 느릴까? 무엇 때문에 남성은 돌봄에 참여하기를 주저할까?

돌봄은 생활에 필수적인 세탁, 음식준비, 청소, 간호 등 상당량의 궂은 일을 포함한다. 돌봄은 영유아나 아동, 노인,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생명줄이다. 하지만 궂은일은 역사 기록이 보여주듯 비시민, 즉 여성, 노예, 외국인 노동자 계층이나 타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에게 전가시킨다(트론토, 2014). 가정 내에서 여성의 무보수 노동을 기대하고, 시장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요구한다. 이 같은 상황은 앵겔스(2007)가 묘사한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까지 그 기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원시시대,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적인 노동 분업 이후, 남성의 생산 영역이 발달하면서 소유와 사회적 지배가 발생하고, 남성들의 합의에 의한 '중요한 일'의 기준이 생기면서 여성이 맡은 돌봄이 가치 없는 일로 구분되었고, 오천년의 역사

성을 가진 것이다. 돌봄이 생존의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평가 절하된 이유이다.

돌봄에 합당한 가치를 부여함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취약하고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돌봄은 생존 기술로 평가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간은 타인의 돌봄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다. 돌봄을 통한 생산, 재생산되는 시민이 없이는 어떠한 국가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실제적 차이는 가치, 비가치의 차이가 아니다. 생산이 직접적인 가치 창출로 드러난다면, 재생산은 간접적인 가치 창출로 순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포르투나띠(1997)는 여성의 돌봄과 가사 노동이 '잉여 가치를 창조하는 엄밀하게 맑스주의적 의미에서 생산적이라 주장했다. 여성의 일인 돌봄은 다른 모든 노동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고 그래서 잉여가치가 추출된다고 보았다. 여성이 수행하는 돌봄을 통해 자본주의 기계의 톱니가 계속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생산과 재생산, 가치와 비가치의 구분은 무의미한 논쟁이다. 다만 변화된 여성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고 여성에게 돌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적 노동을 위한 자연적 힘으로서 여성을 더 많이 착취할 수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여성주의가 주장하는 '함께 돌봄'은 돌봄의 책임과 권리, 가치 공유를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성지배적인 영역에서 소수의 여성이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해 내고, 사회적 의미에서 돌봄의 재해석하기를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비얼링, 2002). 무엇보다 '함께 돌봄'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는 '함께 돌봄'을 실험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 3. 여성친화도시에서의 돌봄 정책

#### 1)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여성친화도시(Women Friendly City)는 1970년대 북미에서 도시 공간의 안전에 대해 여성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밤길 안전하게 다니기’ 캠페인으로 이어진 것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여성의 안전을 바탕으로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도시 차원의 새로운 접근으로 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박태원·천현숙, 2012). 도시에서 성 평등한 인간 정주의 문제는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UNCED) 리우환경선언과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2) 등에서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주목받았다. 특히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는 인간 정주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들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강조되었다(유희정 외, 2010).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는 여성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때문이다. 성 주류화는 사회적 성(gender)의 관점에서 정부가 실현하는 모든 정책이 양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양성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계획·추진·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여성대회에서 북경행동강령으로 성 주류화를 채택한 이후 각 나라는 성 평등을 실현하고 도시를 여성친화적으로 개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여성친화도시는 보다 확산되었다. 즉, 여성친화도시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에 대한 성 평등 실현과 정책의 성 주류화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친화도시도 도시 안전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개선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들어 ‘여성이 행복한 도시건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등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도시개발에 여성의 이슈를 접목시키기 시작하였고, 점차 정책의 중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03년 한국여성건설인협회가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자치단체들이 도시 계획과 공원 조성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다(최성지, 2012).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도시 인프라 요구가 증대되면서 민선 지방정부들이 자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성친화도시의 주류 정책 전반에 젠더 관점을 접목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도시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고, 2009년 익산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 제1호로 지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이미원, 2009).

여성친화도시 개념은 여성가족부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체결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협약서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양성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하여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여성친화도시는 성별 차이 없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혜택을 누리는 성 평등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여성친화도시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형평성, 돌봄, 친환경, 소통이며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목표로 한다.

이제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여성정책을 변화시킬 양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이미원, 2011). 일부 연구자는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성친화도시를 ‘성 인지(性認知) 정책’의 발현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김경희, 2011; 성지혜 · 이미원, 2012). 성 인지 정책은 여성과 남성 간의 지속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정하기 위해 모든 이슈와 모든 수준의 정책 형성 및 시행 과정을 성 인지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 검토하고 제고하는 성 주류화의 일환이다.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그동안 추진한 여성정책의 내용을 심화시키면서 성 인지 정책으로 전

환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박금식 외, 2011).

여성친화도시는 2009년 익산시와 여수시를 시작으로 2016년 1월 현재 전국 66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가족부와 조성 협약을 맺고 있다. 대구는 중구, 달서구, 수성구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경북은 영주시,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등 5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지정일로부터 5년간 여성가족부가 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 따라 지역 정책 전반에 여성의 참여를 높이고, 성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민선 자치단체장의 ‘보여주기’식 전시 효과로 전락될 뿐 실효성 있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는 몇몇 도시기반시설의 개선을 제외하면 시민이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에 단기간에 효과를 드러내기도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미하지만 곳곳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성별영향 분석으로 균형 참여와 불평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법·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정책과 사업의 성별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도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여성친화도시가 완성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협약이기에, 여성친화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미가 크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여성친화도시에서의 돌봄 정책

여성친화도시는 초기단계부터 돌봄을 중요한 핵심 가치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돌봄 편의시설에 필요한 도시 기반을 갖추거나 갖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돌봄 사업 실적과 대표 사례를 평가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의 돌봄에 대해 유희정 외(2010)는 “지역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협력과 지원, 육성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통적 성별 역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돌봄을 남녀가 공유하고, 사회가 돌봄을 적극 분담하여 일·가정 양립의 환경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따라 그동안 여성의 책임이었던 돌봄을 이제는 극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남녀의 공유와 사회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 문화를 육성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성친화도시정책 현장에서의 돌봄은 정부의 고용률 70% 목표 달성과 함께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여성 고용률 제고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임신·출산·양육·가사’가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이며, 여성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각종 돌봄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돌봄을 지원 하는 관련 법규를 정비·보완하고 있으며, 돌봄이 여성의 경력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돌봄을 중심으로 여성 고용률 제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력유지,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돌봄의 형평성 문제, 돌봄의 사회화, 돌봄 공동체 형성 등이 주류 담론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이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도구로 활용될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에서 돌봄 정책이 어떻게 계획·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대구와 경북 각각 2개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 중 돌봄 영역을 분석하였다. 4개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은 자치단체가 지역 여성정책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수립된 것이다. 중장기 계획의 검토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자치단체의 추진목표 및 관련 사업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정책 담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1〉 지역별 돌봄 영역의 성 평등 목표

구 분	성 평등 목표
대구(가)	사회적 돌봄 강화 다양한 자녀 돌봄 기회를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대구(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돌봄의 사회적 공동책임 인식 전환 보육의 공공성 강화
경북(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돌봄 서비스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
경북(나)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및 가족친화시설 확충 돌봄의 사회화 및 사회적 약자 돌봄

먼저 돌봄 영역의 성 평등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자(〈표 1〉). 대구(나)와 경북(가)는 일·가정 양립으로 분명하게 명시하였고, 대구(가)도 ‘여성일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으로 표현하였으나 일·가정 양립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대구(가), 대구(나), 경북(나)는 돌봄의 사회화, 공공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4개 여성친화도시가 돌봄 영역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성 평등 목표는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에서 강조하는 성 평등과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다. 여성친화도시는 돌봄의 가치 실현을 성별 고정관념 극복에 두면서, 성별 형평성과 균형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돌봄이나 일·가정 양립 환경은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인 것이다. 언



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사업 내용이나 실천 방법이 다르므로 변화 양상과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돌봄의 성 평등 실현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주저하는 동안에 여성친화도시 현장에서 돌봄은 성 평등과는 달리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좀 더 잘하기 위한 환경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다.

돌봄 관련 사업은 공공서비스, 교육프로그램, 가족친화제도, 기타로 구분할 수 있다. 네 지역 모두 다양한 보육을 위한 공공서비스 및 기반 구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을 위한 제도 운영이 많았다. 반면, 성별화된 돌봄에 대한 문제의식과 균형 참여를 위한 사업은 찾을 수 없었는데, 돌봄의 성 평등 목표와 사업의 연계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표 2〉).

돌봄의 고정관념 극복과 의식의 변화는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되고 있는 교육은 ‘여성친화 아빠교실’, ‘아빠 육아스쿨’, ‘행복한 아버지 학교’, ‘파더링 프로그램’ 등으로 아빠의 정체성 확립, 행복한 가족의 리더로서 관계회복, 행복한 아빠 되기, 자녀에게 훌륭한 멘토 역할의 아빠, 아내에게 사랑과 존경의 파트너로 인정받는 아빠를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육이 돌봄의 성별 불평등을 해체하고, 성 평등 실천을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자칫 아빠의 정체성 확립, 아빠 리더 역할 등으로 성별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고착화시켜, 역차별의 논란을 증폭시킬 우려도 안고 있다. 또한 가족의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고, 돌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자를 ‘아빠’로 한정하기보다 전체 남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아동, 청소년기에 형성된 자아가 일생에 걸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성친화도시이기에 새로운 전환적 발상의 가치적 사고가 필요하며, 실행에 옮기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표 2〉 돌봄 관련 사업

구분	영역	사업 수	세부사업명
대구 (가)	공공서비스	5	마더센터 운영 지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야간민원실 운영, 어린이집 야간서비스 확대 운영, 찾아가는 아이돌보미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베이비시터 양성·과건 사업
	교육프로그램	1	여성친화아빠교실(더 좋은 아빠 되는 날) 운영
	가족친화제도	2	맘 놓고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여성친화기업 지정 사업
	기타	2	맞춤형 가족사랑 복지사업, '아빠 요리의 날' 지정 운영
대구 (나)	공공서비스	4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 공공성 강화(시설보완), 시간연장형·시간제보육 시설 확대,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교육프로그램	1	아빠 육아스쿨 운영
	가족친화제도	2	가족 돌봄 지원(육아데이 등), 가족친화제도 운영
	기타	2	취업자 돌봄 연계, 가족 어울림 축제 운영
경북 (가)	공공서비스	5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확대, 드림스타트 <sup>3)</sup>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1	행복한 아버지 학교 운영
	가족친화제도	1	기업·공공기관 가족친화환경 조성
	기타	1	여성친화시설 및 돌봄 시설 확충
경북 (나)	공공서비스	8	방과 후 보육서비스 제공,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서비스 질 관리 지원체계 구축, 세대통합형 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 플라자' 운영,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확대 설치, 농어촌 보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1	파더링(Fathering) 프로그램 운영
	가족친화제도	2	가족친화적 모범기업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 공공기관 가족친화제도 도입
	기타	1	1~3세대 통합형 시설 다세대하우스 운영

3) '드림스타트'란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6).

돌봄의 성 평등 실현은 ‘함께 돌봄’에서 시작한다. 돌봄의 공유가 전제되지 않고, 공공성만을 강조한다면 돌봄의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고,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여성친화도시가 여성이 ‘일’도 하고, ‘가정’도 잘 돌보는 환경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또 다른 이중, 삼중의 책임을 전가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전업주부를 희망하는 여성의 선택 기회를 차단하는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돌봄’의 의미와 실천을 우선 강조해야 한다. 또한 여성친화도시의 일·가정 양립은 돌봄의 책임과 권리의 형평성을 고려함으로써 돌봄 제공과 돌봄 수혜를 함께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 4. 돌봄, 변화와 혁명의 갈림길에서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형성과 함께 고민에 빠진다. 아이를 낳을 것인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것인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닐 것인가? 여성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이러한 선택을 강요받는 동안, 남성은 언제나 자유롭다. 여성과 남성의 취업을 동일하게 보지 않으며, 성 역할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도 유효하다. 강이수 외(2009)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여성의 본분을 양육과 가사로 보고 있으며, 가정의 돌봄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는 제한적인 수용태도가 있음을 비판했다. 가족을 여성의 삶과 성 불평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던 월비(1996)도 여성을 억압하는 가족 내의 불평등한 성 역할 고정관

념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 형성 자체가 성 불평등을 양산하지는 않는다. 가족 내 돌봄의 불균형이 성 불평등을 낳을 뿐이다. 돌봄의 불평등은 여성의 기회 차단을 넘어 국가와 인종으로까지 불평등구조를 확산시키고 있기에 돌봄의 평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돌봄이 성별 간에 더욱 불평등하고, 변화를 이끌기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성이 돌봄에 더 적합하다는 인식의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앵겔스는 성별 차이로 인한 최초의 노동 분업이 ‘여성의 세계사적 패배’를 거쳐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형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 이후 성별 역할 구분으로 확대재생산되면서 돌봄이 여성과 하층민의 역할로 고정되었다. 문제는 생존을 위한 성별 분업의 필요성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에 대한 성 역할 구분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것이다. 여성주의 운동이 성 평등 실현을 위해 돌봄에 대한 성 차별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았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친화도시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성별화된 돌봄의 불평등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면서 평등한 돌봄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친화도시는 불평등한 사회에서 개인이 결코 행복할 수 없으므로 돌봄의 평등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돌봄의 무임승차권을 가진 남성과 숙명적으로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여성이 아닌, ‘함께 돌봄’의 실천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돌봄의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대구·경북지역의 여성친화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 관련 사업을 살펴본 결과, 기대한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몇몇 프로그램은 성 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도 있으며,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이 여성에게 이중노동을 강요하는 결과로 드러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성 평등을 위한

여성친화도시의 실천의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여성친화 도시는 돌봄을 확산시켜야 할 가치 있는 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에서 ‘함께 돌봄’의 다양한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

돌봄은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전 생애에 걸쳐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곽삼근(2007)은 돌봄이 경제적 생산 활동에 못지않은 인간 생존의 필수 덕목이라 주장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돌봄 모델로의 전환이 양성평등 사회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돌봄 가치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돌봄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여성친화도시는 새로운 돌봄 모델을 통해 돌봄 제공과 수혜에서 성 평등을 이루고자 한다. ‘함께 돌봄’은 여성과 남성 그리고 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제 여성친화도시에 ‘함께 돌봄’이라는 씨앗은 뿌려졌으며, 우리 사회는 분명 ‘함께 돌봄’이 보편적인 형태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돌봄의 성 평등이 무엇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린 것을 감안한다면, 변화를 기다리기보다는 돌봄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혁명적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에서는 가능한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이수(2011), “취업 여성의 ‘남편’과 일-가족 문제”, 『젠더와 문화』, 제4권 1호, 43-87쪽.
- \_\_\_\_\_ · 김경희 · 김둘순 외(2009), 『일 · 가족 · 젠더: 한국의 산업화와 일 · 가족 딜레마』, 서울: 한울.
- 곽삼근(2007), “여성주의 이론과 성평등정책”, 『성평등정책론』, 김재인 외, 서울: 교육과학사, 17-46쪽.
- 길리건, 캐롤(1997),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 서울: 동녘, Gilligan, C.(1982),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김경희(2011), “성별영향평가와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 주류화 심포지엄 자료집 발표문(2011.9.29).
- 러너, 거더(2004), 『가부장제의 창조』, 강세영 옮김, 서울: 당대, Lerner, G.(1986), *The Creation of Patriarc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박금식 · 하정화 · 이해주(2011),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연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태원 · 천현숙(2012), “여성친화도시의 개념과 도시계획 구성요소”, 『월간 국토』, 통권 제372호, 29-40쪽.
- 배은경(2010), “현재의 저출산이 여성들 때문일까?: 저출산 담론의 여성주의적 전유를 위하여”, 『젠더와 문화』, 제3권 2호, 37-75쪽.
- 볼스, 글로리아 · 클레인 R. 듀엘리(1986), 『여성학의 이론』, 정금자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Bowles, G. and K. R. Duelli(1983), *Theories of Women's Stud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비얼링, 도로테(2002), “일상사와 양성관계사”, 『일상사란 무엇인가』, 알프 뢰트케 외, 나종석 외 옮김, 서울: 청년사, 229-255쪽, Lüdtke, A.(1989),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Frankfurt a. M.: Campus Verlag.

성지혜 · 이미원(2012), 『지역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율적 운영 방안』, 대구: 대구여성가족재단.

송다영(2014), “한국 30~40대 여성의 이중돌봄 현실과 돌봄경험의 다중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3호, 209-230쪽.

안숙영(2010), “세계화, 젠더 그리고 지구적 전략”, 『젠더와 문화』, 제3권 1호, 175-202쪽.

앵겔스, 프리드리히(2007), 『가족, 사적소유, 국가의 기원』, 김경미 옮김, 서울: 책세상, Engels, F.(1884),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s*, Zürich: Verlag der Schweizerischen Volksbuchhandlung.

월비, 실비아(1996), 『가부장제 이론』, 유희정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Walby, S.(1990), *Theorizing Patriarchy*, Oxford: Basil Blackwell.

유희정 · 김양희 · 이미원 외(2010),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서울: 여성가족부.

이미원(2009),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발전 방향』, 서울: 여성부.

\_\_\_\_\_(2011),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기본과제”, 『대전발전포럼』, 통권 제41호, 대전: 대전발전연구원, 18-29쪽.

장혜경 · 김은지 · 김영란 외(2012),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 전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초도로우, 낸시(2008), 『모성의 재생산』, 김민예숙 · 강문순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Chodorow, N.(1999)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최성지(2012), “여성친화도시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월간 국토』, 통권 제372호, 6-12쪽.

터틀, 리사(1999), 『페미니즘 사전』, 유희련 · 호승희 옮김, 서울: 동문선,

- Tuttle, L.(1986), *Encyclopedia of Feminism*, New York: Facts on File.
- 트론토, C. 조앤(2014), 『돌봄 민주주의: 시장·평등·정의』, 김희강·나상원 옮김, 서울: 아포리아, Tronto, C. J.(2013), *Caring Democracy: Markets, Equality, and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틸리, A. 루이스·조앤 W. 스콧(2008), 『여성·노동·가족』, 김영·박기남·장경신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Tilly, L. A. and J. W. Scott(1987), *Women, Work, and Family*, London: Routledge.
- 포르투나띠, 레오볼디나(1997), 『재생산의 비밀』, 윤수종 옮김, 고양: 박종철출판사, Fortunati, L.(1981), *L'arcano della riproduzione: Casalinghe, Prostitute, Operai e Capitale*, Venezia: Marsilio Editori.

〈인터넷 자료〉

- Daum(2015), “국어사전”, <http://dic.daum.net>(검색일: 2015.11.14).
- 보건복지부(2016), “드림스타트”, <http://www.dreamstart.go.kr>(검색일: 2016.4.16).

(논문 투고일: 2016.04.26, 심사 확정일: 2016.05.23, 게재 확정일: 2016.05.30)



〈Abstract〉

## The Feminist Perspective of Care Practice in a Women-Friendly City: Focused on Daegu · Gyeongbuk City

Sung, Ji-Hye\*

Care is acknowledged to have a gender perspective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Women appear to be better suited for the role of providing care. Caring practices are therefore a matter of gender ideology and do not match with masculinity, showing that gender ideology still operates in both private and public sectors. Women are vested in the public sector, having left the private sector long ago. However, care is the responsibility of women, so that most women suffer from the dual responsibility of work and family life. Such inequality of gender roles is undemocratic since women must combine both family life and work life. The concept of a Women-Friendly City, therefore,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eans of realizing gender equality. The Women-Friendly City shares the responsibilities of care over women, men and nations. This addresses the issue of gender roles that is at the heart of sexist attitudes, whereas the feminist movement aims to solve gender inequality. The motto ‘caring with’ heralds a civilizational paradigm shift in the approach to care. This study describes the Women-Friendly Cit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 promoting the idea of ‘caring with’ as a revolutionary change in the concept of caring.

**Key words:** care, dual labor, feminist, Women-Friendly City, caring with

---

\* Research Fellow, Daegu Women & Family Foundation